

박물관 이용안내

관람시간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 * 오후 5시 30분 입장마감

관람요금 무료

휴관안내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교육프로그램 안내

교육대상 어린이, 청소년, 성인, 가족

교육신청 송파책박물관 홈페이지 - 교육 - 예약 - 교육신청

주차안내

주차운영 24시간 운영

주차요금 최초 30분 무료, 무료시간 경과 후 5분당 150원 부과

결제방법 - 카드결제

오시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7길 77

지하철 8호선 송파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9호선 석촌역 5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버스 3322, 3417, 3422

송파책박물관·헬리오시티 정류장에서 도보 1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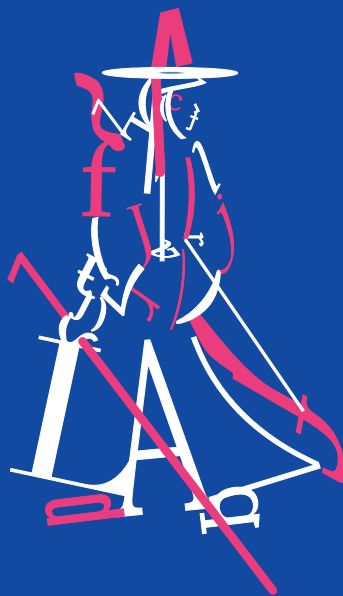
홈페이지 www.bookmuseum.go.kr

전화번호 02-2147-2486

정보문의의번호 2022-103

웰컴 투 조선 WELCOME to JOSEON

책 속에 남겨진 조선의 이야기
The Story of Joseon Recorded in Books



2023.01.13. — 08.31.

송파책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Songpa Book Museum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COUNTRY CODE

[illegible][illegible]

헐버트(Homer B. Hulbert), 『The Passing of Korea』

조선은 서양에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나라였습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세계의 눈은 조선으로 향했고, 푸른 눈의 수많은 서양인들이 조선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선에 첫발을 내딛은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바라보며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탐구하고 기록과 그림, 사진을 책에 실어 출판하였으며, 조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웰컴 투 조선(부제: 책 속에 남겨진 조선의 이야기)’이라는 주제로 개항 이후 우리 땅을 밟은 서양인들의 시각으로 남긴 조선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서양인들이 출판한 책에는 조선의 인쇄 기술과 책의 역사, 한국어 어휘와 문법을 비롯한 책 문화는 물론 조선의 건축물과 문화재, 조선인들의 일상과 풍속 등 조선의 다양한 면모가 담겨 있습니다. 조선의 문학과 책에 깊은 애정을 가졌던 쿠랑(Maurice Courant)의 『한국 서지(Bibliographie Coréenne)』, 우리의 옛 이야기를 재해석한 헐버트(Homer B. Hulbert)의 『마법사 엄지(Omjee, The Wizard: Korean Folk Stories)』, 조선의 아름다운 정취와 다양한 색을 생생하게 담아낸 키스(Elizabeth Keith)의 『올드 코리아(Old Korea: The Land of Morning Calm)』를 비롯하여 서양인의 시선으로 그려 낸 책들을 한곳에 모아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누군가에게는 ‘은자의 나라’로 또 다른 이들에게는 ‘문명성과 지적 우수성을 지닌 나라’로 상반되게 그려졌던 조선의 이면을 발견하고, 과거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느껴 보시기를 바랍니다.

Joseon was a mysterious country, unknown to the West.

By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world started to notice Joseon, and many blue-eyed Westerners knocked on its gates. Those new to Joseon looked at its history and culture with curious eyes, hoping for answers. They explored Joseon, published records, drawings, and photographs of Joseon in books, and took the lead in promoting Joseon to the world.

In this exhibition, under the theme of “Welcome to Joseon(The Story of Joseon Recorded in Books)” we will explore Joseon from the perspective of Westerners who have stepped on our land since the opening of the port. The books published by Westerners at the time cover a wide range of topics, including Joseon's printing technology, literary history, and Korean vocabulary and grammar, as well as Joseon's architecture, cultural assets, daily life, and customs. From Maurice Courant's “Bibliographie Coréenne,” in which the author had a deep love for Joseon literature and books, to Hulbert's “Omjee, The Wizard” which reinterprets Korean folktales and Elizabeth Keith's “Old Korea” which vividly captures the beautiful atmosphere and colors of Joseon; in this exhibition, we present you the books that depict Joseon through the eyes of Westerners.

Through this exhibition, we hope that you will discover the other side of Joseon, which was portrayed as “The Hermit Nation” for some and “a country of civilization and intellectual excellence” for others, as you feel the breath of history and culture of the past.

Joseon Meets the World

SECTION. 1

조선,
세계를
만나다

조선은 1668년 하멜(Hendrik Hamel)이 쓴 표류기에 의해 서양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882년 조선의 개항 이후 각국의 탐험가, 화가, 외교관, 선교사 등 조선에 입국하는 서양인들이 늘어나면서 오페르트(Ernst J. Oppert)의 『A Forbidden Land: Voyages to the Corea』(1880),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의 『Corea: The Hermit Nation Corea』(1882) 등 조선에 대한 서적들이 본격적으로 발행되었다. 당시 그들이 바라보고 기록한 조선은 다른 문화권이었던 서양인들의 시각으로 묘사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조선의 문화와 생활상이 담긴 사진, 영상, 그림 등의 생생한 기록은 조선이 세계와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특히 선교를 목적으로 조선에 방문했던 게일(James S. Gale), 험버트(Homer B. Hulbert) 등은 영국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를 창설하고 한국 고문헌들을 수집하여 조선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연구된 조선의 역사와 문화 등은 왕립아시아학회지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로 발간되어 조선의 가능성과 역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006



007

The Story Beyond the Books

책,
그 너머의
이야기

SECTION. 2

조선인이 학문과 학자를 숭상하며 교육열이 대단하다는 것은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인상이었다. 게일(James S. Gale)과 헐버트(Homer B. Hulbert)는 그들의 저서에서 '조선은 책과 학문을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소개하였다. 또 책을 빌려주는 '세책점'에 주목하며 조선의 독서 환경을 흥미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해밀턴(Angus Hamilton)은 조선의 모든 계층이 소설을 구입하고 세책점을 이용했다고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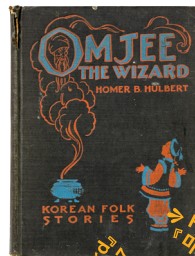
당시 서양인들의 기록에는 '조선의 독특한 독서법'에 대한 일화가 다수 등장하는데, 특히 소년들이 서당에 모여 앉아 책을 소리 내어 읽고 몸을 앞뒤로 흔드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의 책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이방인들은 조선 사람들이 즐겨 읽었던 고전 소설이나 구비 소설을 번역하고 개작하기도 하였다. 조선의 책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번역 활동은 조선 사회의 성격과 독창적인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James S. Gale,
『Korea in Transition』
『전환기의 조선』
1909, 19.6x13.5



W. A. Son Grebst,
『I Korea』
『스웨덴 기자, 100년 전
한국을 걷다』
1912, 22.2x15.6



Homer B. Hulbert,
『Omjee the Wizard』
『마법사 오지, 1925, 23.6x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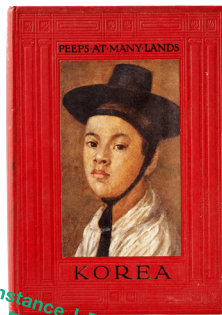
Joseon

Depicted with Brush and 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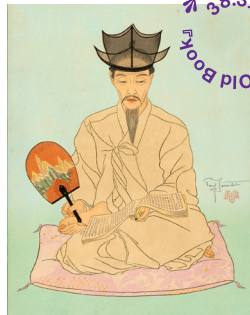
붓과 펜으로
그려진

SECTION. 3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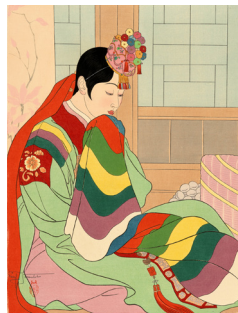
19세기 말 서양의 학자, 화가, 선교사 등은 각기 다른 목적으로 조선을 탐험하였다. 이때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붓과 펜, 사진기를 통해 기록을 남겼다. 조선을 방문한 최초의 서양화가 랜도어(Arnold H. Savage Landon)와 저널리스트 해밀턴(Angus Hamilton) 등은 각각 그들의 저서에 삽화와 사진을 실어 조선의 거리 풍경과 조선인들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담아내고자 하였다. 특히 서양인 여행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이색적인 경관은 금강산이었다. 금강산의 풍경을 본 외교관 커즌(George N. Curzon)은 '불교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이 나라에서 가장 빼어난 곳'이라며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극찬하였고, 키스(Elizabeth Keith)는 그의 책 『Eastern Windows』(1928)에 금강산의 신비로운 절경을 그림과 함께 남겼다. 또 커즌, 릴리어스 언더우드(Lillias H. Underwood) 등은 서울의 저잣거리뿐만 아니라 조선의 역사가 담긴 건축물과 문화재에도 관심을 갖고 책에 소개하였다. 이후 해외에서도 한국의 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1920년 프랑스 국립 기메 동양 박물관에서 한국에 관한 도록을 발간하였으며, 독일의 신부 에카르트(Andreas Eckardt)는 한국 미술사 서적인 『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1929)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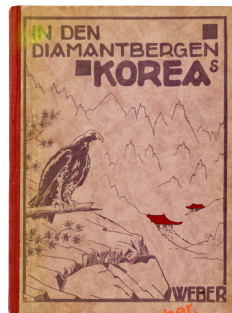
Constance J. D. Coulson,
E. H. Fitchew,
『Korea: Peeps at Many Lands』
1910, 19.8×14.0



Paul Jacoulet
『An Old Book』
18.3×9.3



Paul Jacoulet,
『A Bride』
39.3×30.8



Norbert Weber
『In den Diamantbergen Korea』
『수도사와 금강산』
1927, 22.1×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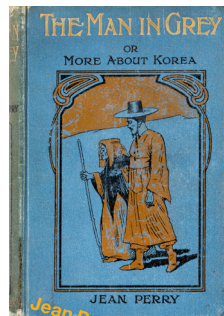
Recording Dreams and Hopes

꿈과
희망을
기록하다
SECTION. 4

개항 이후 근대 문물이 유입되던 19세기 말, 조선인들은 여전히 성리학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선교를 위해 조선의 문을 두드렸던 서양인 선교사들은 근대 교육과 의료 기술을 들여와 조선의 교육과 의료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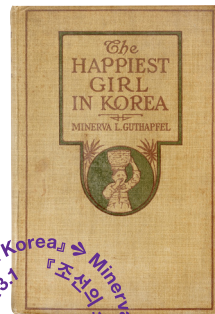
알렌(Horace N. Allen) 이후 조선에 들어온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와 페리(Jean Perry) 등은 학교와 고아원을 세워 선교 활동을 펼치며 근대 교육을 전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길모어(George W. Gilmore)는 『Korea from Its Capital: With a Chapter on Missions』(1892)에 선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기록하였으며, 버스커크(James D. Van Buskirk)는 『Korea: Land of the Dawn』(1931)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조선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당시 선교사로 활동했던 노블(William A. Noble), 구타펠(Minerva L. Guthappel) 등은 조선에서 겪은 일을 바탕으로 『EWA: A Tale of Korea』(1906), 『The Happiest Girl in Korea』(1911)와 같은 선교 소설을 저술하였다. 이들은 조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선의 실상을 알리고자 하였고, 나아가 자신들의 도움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된 아이들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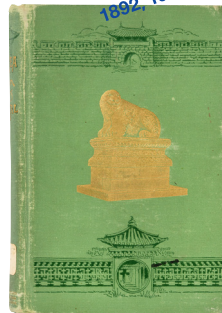
Jean Perry,
『The Man in Grey』
1906, 18.8×13.2

Hallie Buie,
Virginia Fairfax,
『Ke Soon!』
1947, 20.7×15.7



『The Happiest Girl in Korea』
Minerva L. Guthappel
1911, 19.6×13.1
『조선의 소녀 행복 이야기』

George W. Gilmore,
『Korea from Its Capital:
With a Chapter on
Missions』
『서울풍물지』
1892, 19.0×13.5



Looking into Joseon, Custo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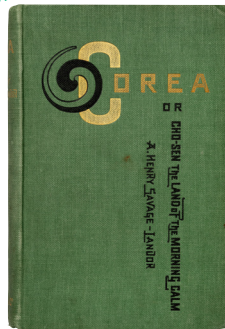
풍속을
들여다보다

SECTION.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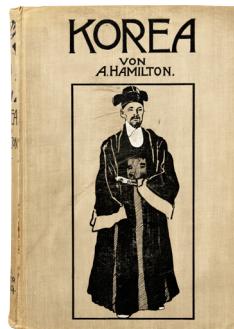
19세기 말~20세기 초 조선을 유람하던 서양인들이 접한 조선의 일상은 생소하고도 이색적이었다. 특히 조선의 전통 놀이와 혼례, 종교 행사 등은 서양인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문화였다. 조선에 거주하던 서양인들은 그네, 널뛰기, 연날리기, 석전 등 명절마다 여러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놀이에 호기심을 가지고 기록하였다. 더불어 마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 혼례나 굿에 관심을 가졌고, 저서에 그 과정과 이미지들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선교사 클라크(Charles A. Clark)는 『Regions of Old Korea』(1932)에서 조선의 종교를 설명하며 샤머니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소개하였다. 이 외에도 조선인들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다소 특별한 모습에 대해서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대표적으로 베리만(Sten Bergman)은 그의 저서 『In Korean Wilds and Villages』(1938)에서 조선의 매와 호랑이 등의 야생동물과 사냥 방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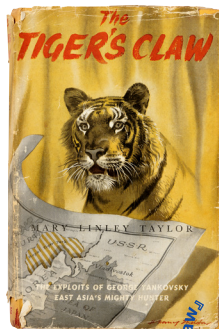
Stewart Culin,
『Korean Games』
『한국의 놀이』
1895, 25.7×19.3



Arnold H. Savage Lander,
『Corea or Cho-se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1895, 23.0×15.3



Angus Hamilton,
『Korea』
『러일전쟁 당시 조선에
대한 보고서』
1904, 23.5×16.1



Mary L. Taylor,
『The Tiger's Claw』
1956, 22.3×15.0